



영상취재/바둑오지를 찾아 ⑨

강원도 도 계

- 글/정용진 편집장
- 사진/이시용 기자

계는 탄광촌이다.
 우람한 육백산 협곡을 끼고 뱀처럼 따리를 들고 있는 이 도시는 행정구역상 삼척시에 속한 읍단위 부락이지만 광산도시라는 면에서 태백·사북·고한을 묶는 강원 남부의 태백권에 더 가깝다. 구름도 울고 넘는다는 험준산령. 석탄을 가득 실은 영동선 기차들도 가파른 고갯길을 지그재그로 전후진을 거듭해야만 간신히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도계는 검은색이 지배하는 도시다. 검은 바닥이 드러난 하천, 녹슨 고철더미로 입구를 가로막은 곳곳의 폐광. 떠날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초겨울 을씨년스런 한풍만이 무너진 폐가를 들락날락거리는 한촌이다. 빈촌이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무연탄처럼 칙칙해진 이 태백권에 최근 '관광특구' 지정과 내국인도 드나들 수 있는 '국제 카지노 도시 건립'이란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반짝' 활기가 돌고는 있으나 이곳 주민들의 시름은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도 축다. 무슨 일로 이 엄한 데까지 왔느냐며 외지인에게 측은한 눈길을 주던 읍내 여관 주인아줌마가 숙박부 직업란에 쓴 '기자'란 두 글자를 보자 이웃사람 맞듯 화들짝 반긴다. "잘 좀 써 주이소" 어떤 분야의 종사자인가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이곳 사정을) 잘 좀 써 달라고 부탁한다. 실낱같은 희망을 움켜쥔 말이였다.



흔 빨래를 널 수 없고 흰 옷을 입고 다닐 수 없는 곳이 탄광촌이다.
 그러나 이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 옛날만큼 흑사바람 걱정할 일이 없다. 채탄량이 눈에 띄게
 ‘확’ 줄었기 때문이다.
 예전 이곳에서는 모기를 구경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연탄 가스 탓에 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 여름은
 모기때 극성에 진저리를 쳤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소장 이병학)를 찾았다.
 ‘대한석탄공사’ 하면 70~80년대 직장바둑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바둑 센 회사이다. 당시 유병모 7단·박치문
 7단·박윤서 7단·김복규 5단 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진은 가히 무적이었다. 광산경기가 좋을 때의 일이었다.
 지금은 본사의 유병모 7단과 도계광업소에 김복규 5단만이 남았을 뿐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남은대로 여전히 바둑을 둔다. 옛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의 피로를 달래려고, 무덤덤한
 인생에 덧칠을 하려고 돌을 잡는다.
 도계광업소의 양우회(良友會)에는 53명의 기우(棋友)가 가입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 1회의 회장배와
 분기마다 주변 기우회와의 교류전 개최는 빼놓지 않는 정기행사.
 “사세가 옛날같지 않아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못해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병학 소장이 가슴 아픈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社長經營方針
人和團結
思考正義
創造精進

11
1 2 3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한동수리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마치고
나온 광부들은 씻는 등 마는 등 미처 얼굴에 거뭇거뭇 묻은 탄가루를 닦아내기도 전에
바둑판부터 찾는다.
오른쪽 맨뒤에 앉아 관전하는 이가 도계지역 최고수인 김복규 씨이다.



도계국민학교의 최승길 선생이 바둑특활반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서 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이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굳이 읍사무소를 들를 것 없이 국민학교를 방문하면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

7 도계읍 한복판에 자리한 도계국민학교(교장 최선규)는 개교 56년째의 전통깊은 공학이다. 이 학교는 한때 72개 학급에 교감을 두 명씩이나 둘 정도로 도내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했다. 그러나 지금은 23학급, 전교생 800여 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6학년 6개반의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내년부터 4개반의 결손이 눈에 뵈히 보인다.

광산경기가 절정을 이루던 86~88년 무렵 도계읍의 인구는 5만여 명 선에까지 이르렀다. 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가 지금은 2만여명.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만 보더라도 88년 3,00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감원됐고, 생산량도 비례해 60% 정도 감산됐다. 현재 연간 51만톤 정도를 채탄할 뿐이다.

직장을 잃은 아버지가 떠나면 자연 어린아이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

도계국민학교는 이제 공부하는 교실보다 빈 교실이 훨씬 많아졌다.

빈 교실의 증가는 탄광촌의 '몰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농현상이 심한 농촌지역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심한 경우는 비행 청소년들이 본드흡입 장소로까지 악용된다고 하니, 관리에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이런 차에 도계국민학교가 '빈 교실 활용'의 묘수를 내놓아 교육계의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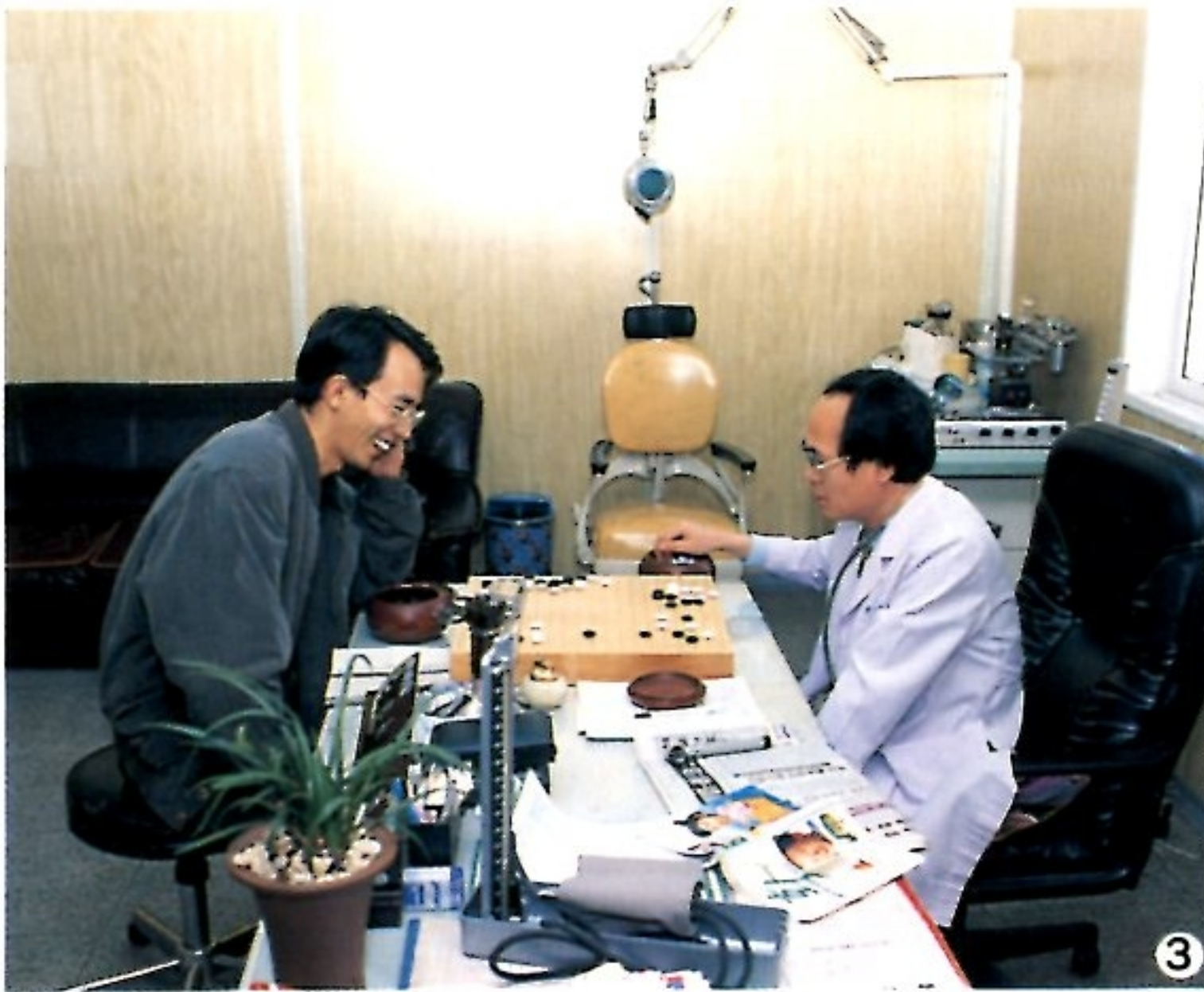
햇살 좋은 날이면 최선규 도계국민학교 교장은 종종 학생들과 어울려 교정에서 바둑을 둔다. 이런 때면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이 마치 친할아버지 같다고 하며 즐거워 한다.



도계국민학교의 바둑교실은 밤늦게도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교실이다.



요 수를 선보인 장본인은 도계국민학교 체육주임 최승길(45) 선생. 한 현직 교사의 노력으로 이 빈 교실이 읍민의 바둑사랑방으로 활용되며 수담을 통한 대화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마4단의 바둑실력을 갖고 있는 그는 도회든 오지든 부임하는 곳마다 바둑특활반을 만드는 ‘바둑선생’으로 유명한데, 도계국민학교에 와서는 최선규(60)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빈 교실— 그것도 교무실 바로 옆방— 하나를 아예 상설 ‘바둑교실’로 문을 열고 학부모들에게도 개방했다. 의외로 학부모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바둑이 세든 약하든 단시일내에 정석회 (회장 김상원, 도계석탄공사 근무)란 기우회가 만들어졌고, 바둑교실은 어른들의 돈과 손으로 꾸민 학교내의 유일한 교실이 되었다. “40여 분 정도가 가입하셨는데, 광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종은 다양한 편입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밤에는 학부모들이 바둑교실을 찾지요. 자식을 맡긴 학교에서 바둑을 두니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고 교내의 어려운 점도 전보다 더 잘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게 됩니다. 기우회라기보다는 육성회에 가깝지요 하하.”(최승길 선생) “산간오지라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게 이곳 현실입니다. 그런 탓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요. 아이들 입장에서 봐서도 바둑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 열린 도내 학교운영 평가회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입니다.”(최선규 교장)



① 도계의 검은 하천

② 쇠창살로 바리케이트가 쳐진 폐광 입구

③ 바둑교실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고려병원 김홍 원장(오른쪽)과 부부약국 김병기 약사가 원장실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후다닥 한판 대국을 벌이는 장면.
이들은 도계의 소문난 바둑광으로 지역발전에 애쓰고 있다.

④ 김홍 원장의 점심시간 진료 책상 모습. 청진기 아래의 보다 만 월간 '바둑'지가 그의 바둑열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새 벽이란 늘 어둠의 끝에 묻혀 따라온다.
 과거 대단위 탄광들이 밀집돼 있던 지역들이
 석탄산업 사양화로 소외지역으로 밀려나고
 영세민·무의탁 노인·소년소녀가장세대
 ·진폐환자들이 폐광의 빈 사택에 오도가도 못한 채
 특유의 슬럼가를 형성하는 등 슬픈 현실이 이 땅을
 드리우고 있지만 삶이란 무척이나 모진 것이어서
 이들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곳을
 살리자.”
 젊은이들이 사라졌고 덩달아 아이들이 씨가
 마르다시피 한 이 땅에서 노인들은 단풍든 도계
 긴잎느티나무(천연기념물 제95호, 수령 2,500년)
 아래에서 게이트볼을 치고(사진 맨 위쪽), 그닥
 신명날 것도 없는 철도원은 그래도 변함없이
 신명나게 철로를 바꾼다(오른쪽 큰 사진).
 도계갱에서 채탄한 무연탄을 가득 실은 기관차가
 도계읍내를 가로지르며 ‘괘약-괘’ 기적을 울리며
 새벽 어스름을 가른다.

(취재에 도움을 주신 도계국민학교 최승길
 선생님과 정석희 회원들,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그래도 아이들은 현실의 꿈이다.
 탄광촌 아이들은 아침을 아예 거르도록 습관이 들어 있다.
 학교 점심급식으로 첫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그래도 즐겁다.
 구김살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희망이다, 미래다.
 사진은 도계국민학교 배구부 어린이들이 최승길 선생과
 신형우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신코치는 정석희
 총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